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문화원 양중해 원장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몇몇 설화를 통해 설명하였다.

제주 원주민인 삼성 즉 고씨, 양씨, 부씨에 관한 역사를 진(秦)나라 시황제의 명령에 의해 제인(齊人), 서시(徐市) 등이 불사약(불로초)을 구하러 제주에 온 역사와 연관지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소개하였다. 또, 제주의 척박한 환경과 제주인의 정신을 三多, 三無의 정신으로 설명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도 제주시 중심에 있는 三姓穴과 제주시의 행정구역인 一都洞, 二都洞, 三都洞을 소재로 三姓에 관한 설화를 소개하였다. 三姓穴은 제주도 원주민의 발상지로, 전설에 의하면 '탐라국(耽羅國)의 시조 고을나(高乙那)·양을나(梁乙那)·부을나(夫乙那)의 3신인(神人)이 솟아 났다'는 곳이다. 장은 '고을나', 차는 '양을나', 삼은 '부을나'라 하였다. 그들의 모양도 크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옷과 육식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으며 생활하나 가업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자주빛 흙으로 봉한 목함이 동해쪽으로 떠와서 머물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삼인은 내려가 이를 열고 본 즉 속에는 새알 모양인 옥함이 있고 자주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또,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 6세요 용모는 품위있고, 아

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종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금당의 해안가에 내려 놓았다.

세 신인은 모두 즐거워서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였다. 사자는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의 벽랑국의 사자올시다. 우리 임금님이 이세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성숙함에도 이들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한 해 나머지 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님께서 자소각에 오르시고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신자 세사람이 절약에 내려와 있어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어 하고 있어 신터러 명하여 세 공주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하여 왔으니 좋도록 짝짓는 예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룩하소서 하고는 홀연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세 신인은 곧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나이 차례로 그녀들과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을 쏘아 땅을 정하니 고을나가 사는 곳은 '일도동'라 하였고, 양을나가 사는 곳은 '이도동'이라 하였고, 부을나가 사는 곳은 '삼도동'이라 하였다.